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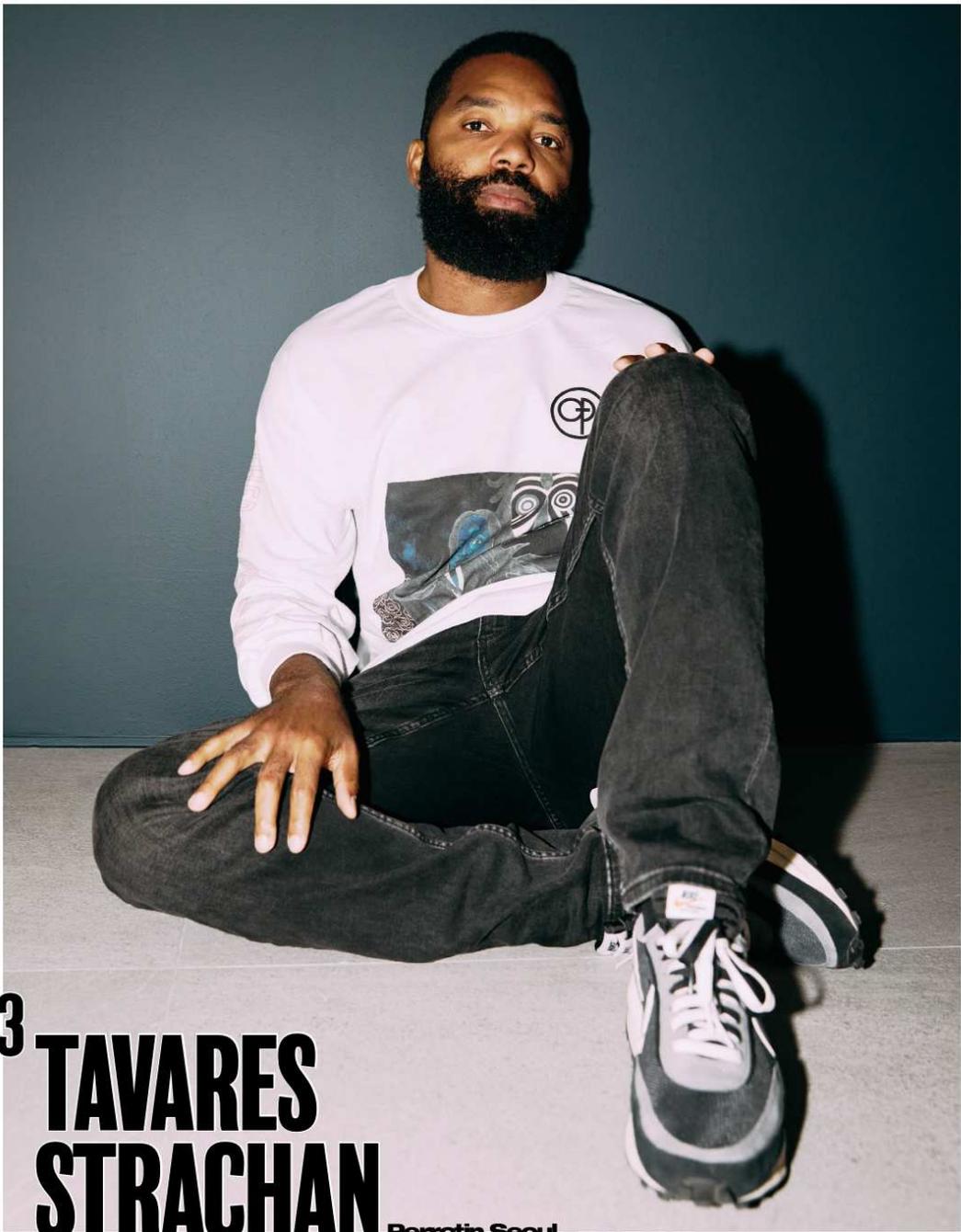
PERROTIN

Tavares STRACHAN

Dazed,

Art Interview

October 2023



3 TAVARES STRACHAN Perrotin Seoul



TAVARES STRACHAN <DO AND BE> 전시 전경, 페로탱 서울 제공.

어제 소주를 좀 마셨다고 들었다.

소주를 무척 좋아한다. 지난 내한 때 처음 마셨다. 돌아가서도 생각나더라.

독했을 텐데, 입에 맞나 보يا.

소주는 나와 한국의 정점이기도 하다. 머무르던 곳을 떠나와 새로운 장소와 의미 있는 연결점을 찾은 건 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소주가 그렇다. 내 작업을 단순히 한국에 가져와 보여주지만 한다고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소주를 좋아하는 건 한국과의 의미 있는 연결이다.(웃음)

올해가 두 번째 내한이다. 어떤가.

나는 고향에 엄청난 대가족이 있다. 아버지 쪽으로 고모와 삼촌이 15명 있고, 어머니 쪽으로도 13명 정도가 있고, 다들 자녀도 있다. 한국도 이런 대가족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내한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모님들과 소통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마스함을 느끼고 있다. 마치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과 익숙함이라 신기하다.(웃음)

가만 이야기를 들으니 공통된 연결점을 찾아가는 일이 작가에선 중요해 보인다.

말한 그대로다. 많은 예술 작품이 사람 간 차이와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내 작업은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DO AND BE> 전시는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인간의 경험'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비슷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

우주가 주요한 배경인 것도 '연결'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관한 호기심은 모든 창작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동굴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감상하는 작품과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종래가 진화해온 과정과 예술 창작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연결성을 아우르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우주라고 생각한다.

기원이라고 하니 당신이 담아낸 우주 속 빛과 성운에 대해서도 말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우주에서 현재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수억 년 전 과거의 것이지.

좋은 포인트다. 우리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일생인 70~80년 정도의 범위에서 말이다. 하지만 과거를 충분히 깊게,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 쪽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1세기 인류는 지구를 너무나 괴롭힌 나머지 우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한다. 사실 우주에 대한 내 관심은 지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Orthostatic Tolerance'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 우주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지구 속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좁고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았다. 당장 인터뷰하고 있는 이 방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금방 모두가 아파질 것이다. 지구에서조차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지구를 벗어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지구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지구가 없으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지구가 낳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가진 그런 관점이 작품 속에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기도 한다. 어떤가.

역사에 큰 관심을 두고 그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정치적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작가가 세계 문제에 취할 수 있는 입장과 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나는 이 세계에 불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작가로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렸다고 지시하기보다는 그와 관련해 인간들이 겪는 경험에 대해 작품으로 풀어내는 일을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이 어떻게 인류 전체로 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Invisibility'이라는 작업이 그 핵심으로 보인다. 인류 모두에게 해당하는 지식을 모아 정리한 책이 '백과사전' 아닌가.

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당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백과사전을 구매한다는 것이 정말 큰일이었다. 우리는 매우 가난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열심히 저축해 백과사전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가 살던 동네에 백과사전이 있는 다른 집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사전을 펼쳐 보았는데 이 방대한 자료 중에 내가 속한 세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백과사전 하면 모든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이 이상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수집과 수집을 거쳐 정말 사전에 이르게 된다.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한다.

가치에 따라 오늘날 기록은 남겨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막연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 같은 질문이다.(웃음)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지금의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화된 상업의 물결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에티오피아의 산속 깊은 곳에 살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그런 점에서 '가치'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외부 시스템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가치를 넘어서는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네트워크 차원 그 이상의 것이다. 그 균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다.

당신과 인터뷰하다 보니 문득 시선을 저 멀리 두게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뭔가 굉장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밤하늘이나 우주를 보면서 소원을 자주 빈다.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나.

나는 매일 매 순간 무언가 비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다.(웃음)

만약 단 한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걸 받고 싶은가.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